

HYUNDAI MOTORSTUDIO ART PROJECT

HYBE

HYBRID ENVIRONMENT 展

HYBRID ENVIRONMENT

기술, 감성을 일깨우다/

감성을 일깨우는 기술

TECHNIC, TOUCHING OFF A SENSIBILITY

그 무엇보다도 자동차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가슴이 터지도록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 숨 막히는 일상에 짓눌려 드넓은 바다나 숲으로 불현듯 떠나고 싶을 때, 하지만 그토록 가닿고 싶은 그 사람과 그 풍경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두 다리만으로는 갈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차에 오르고 아득히 펼쳐져 서로를 갈라놓는 거리를 좁히며 그 사람과 그 풍경을 향해 달려 나간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간절했던 만남은 이루어진다.

이처럼 차는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을 이어준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성적 경험을 촉발한다. 그러던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친밀한 시간을, 사시사철 밤낮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풍경들과의 황홀한 마주침을. 그러므로 자동차는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과 다채로운 감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술 친화적인 동시에 감성 친화적인 사물이다.

감성을 일깨우는 기술을 탐구하는 하이브의 작품 두 점이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사물, 인간, 그리고 공간 사이에 교감의 장을 선사한다.

잎 LEAF (2015)

[잎(Leaf)]은, 감상자의 참여가 메시지를 담은 하나의 잎이 되고 시간이 지나 낙엽이 되어 바닥에 쌓이는 과정을 가을 나무 형태로 형상화한 미디어 조형물이다. 나무 앞에 설치된 터치보드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이 메시지는 강관 끝에 달린 열전사 프린터에서 '종이 잎'이 된다. 나뭇잎처럼 가지 끝에 잠시 머물다가 바닥에 낙엽처럼 쌓이는 이 메시지들은 다른 사람들이 읽어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책장 사이 책갈피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이 '메시지 나무'는 다수의 관람객들이 직접 적은 메시지를 통해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Interactive Media Sculpture,
Pipe Edition for Hyundai Motorstudio Seoul (2015)
Rigid Steel Electrical Conduit,
Heavy Duty Thermal Printer (x32), Tablet PC (x4)

Creative Direction & Design 한창민
Technical Implementation & Programming 류선웅, 황재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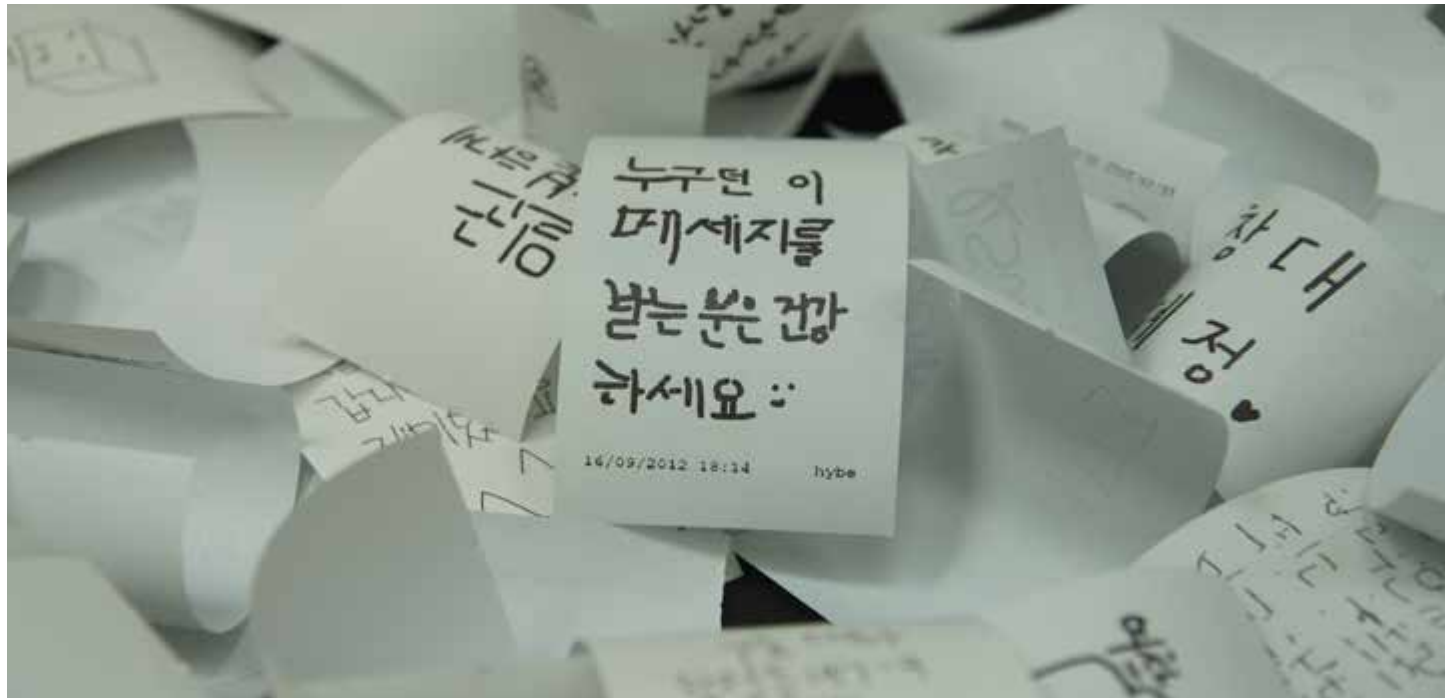
모멘트 THE MOMENT (2015)

[모멘트(The Moment)]는 우리에게, 조금 전에 지나가 더 이상 현재하지 않는 과거의 시간을 평소에 비해 훨씬 느린 속도로 다시 경험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타임머신’이다. 이 ‘타임머신’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맨눈으로는 자세히 관찰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움직임을 촬영하고, 이미 과거의 시간대로 사라진 그 동작의 속도를 대폭 늘려 다시 우리에게 보여준다. 큰 화면에 나타나는 슬로우 모션은 우리가 손을 휘젓거나 점프하는 등의 동작을 마치 무용가의 몸짓이나 도약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일으키며, 일상적인 몸짓과 표정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낯선 자신의 모습을,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참여자는 이 장치를 통해 혼자서 혹은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 속을 부유하는 듯한 체험을 하며 무미건조한 일상의 타임라인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유쾌한 시간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2015)
 High Speed Machine Vision, Motion Sensor, PC
 Creative Direction & Programming 한창민



감상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기능하고 완성되는 하이브의 작품들과 교감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사실 차라는 기계 역시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다양한 감성적 가치와 사용법을 지닌 사물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자동차와 더불어 우리는 차창 너머 다가오고 멀어지는 풍경을, 가속과 감속의 연속으로 형성되는 드라이브의 리듬감을, 동승한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를, 카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그 계절, 그날, 그 시간, 그곳의 분위기를 모두 한꺼번에 경험한다. 이처럼 차라는 사물은 감성적 경험들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안정적인 내부를 지닌 동시에 외부로 가로지르며 우리 밖에 존재하는 세계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차의 공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감성적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어느 한 순간,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한 공간에, 갑자기 하나의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공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 만일 그곳이
일반적인 일터라면, 노동과 업무를 위한 시간이 잠시
멈추고, 음악이 일깨워주는 느낌들로 가득 찬 감성적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감성적
시간으로 채워지는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이 음악이
연주되기 이전의 그 공간이 아니다.

하이프는 자신들이 만든 사물들도 하나의 악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관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악기의 연주자가 되기를 원한다.
악기 연주법을 모른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연주할 수 있을 만큼 그 연주법이
아주 간단하니까. 자신의 이야기, 움직임, 손의 체온,
그것들이면 충분하다. 그것들만으로도 악기들은
반응하고 연주될 테니. 음악이 한 공간을 울림들로
채우며 그 안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듯이,
관객들이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설치된 하이프의
악기들을 연주하며 이 공간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과 분위기를 지닌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시키길
기대한다.

황윤중(문화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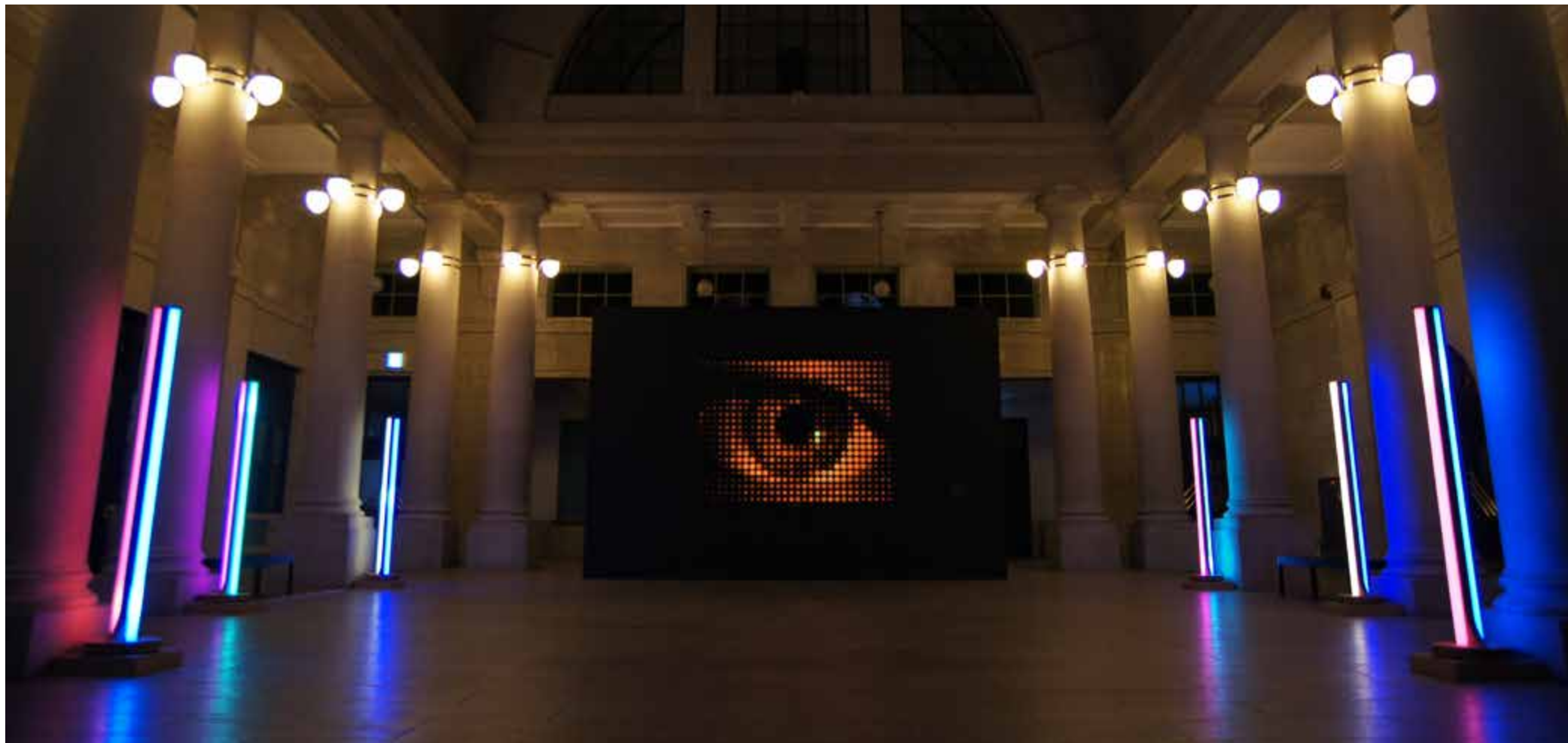




오프닝 퍼포먼스

Opening Performance
Collaboration with Jin Yeob CHA
(Director of COLLECTIVE A)

전시 “HYBRID ENVIRONMENT” 오프닝에는 국내 무용계에서 독립 여성 무용가로 급부상한 현대무용가 차진엽이 참여했다. 차진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영국 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에서 MA학위를 받았고, LDP무용단의 창단멤버로 활동했으며, 이 후 영국 Hofesh Shechter 무용단, 네덜란드 Galili 무용단, 영국 국립 오페라단 등해의 유수의 무용단 및 안무가들과 활동하며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Collective A(컬렉티브 에이)를 창단하였으며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안무총감독을 역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으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오프닝 퍼포먼스에서 차진엽은 하이브의 전시 작품 중 하나인 “The Moment”를 기반으로 ‘움직임’ 속에 담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였다. 차진엽이 보여준 몸의 언어는 즉시적이고 역동적인 춤의 에너지이며 동시에 현대 모토스튜디오 내부의 미디어월에서는 이를 시간을 아우르는 시각예술로 표현한다.



약력 BIOGRAPHY

<http://www.hybe.org>

하이브(HYBE : Hive for Hybrid Environment)는 창의적인 매체와 경험의 가치를 생산하는 뉴미디어 작가 그룹이다. 기술과 예술, 실험과 실용의 접점에서 이를 융합하고 공간과 관객을 이어주는 매개체를 연구하고 창작한다. 하이브의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한창민은 뉴욕 School of Visual Arts에서 Graphic Design B.F.A, 런던 Ravensbourne College에서 Interactive Digital Media MA 학위를 받았다. 한창민은 평면적이고 가상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제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예술과 테크놀로지 경계 사이의 즐거운 실험을 도모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직접적 참여와 새로운 경험을 배치한다.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서울·북경 문화교류의 대표작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발표한 작품 아이리스(IRIS)는 해외 뉴미디어 관련 매체로부터 수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